

## 마해송의 수필 속 개성 한옥 고찰

### A Study of Gae-sung Han-ok in Reference to Ma Hae-song's Essay

김 버 들\*

Kim, Bue-Dyel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공학박사)

#### Abstract

It is difficult to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of Kaesung since it's located in North Korea. After the devastating Korean civil war we have lost a lot of authentic structures. At present, the statement of those who have seen the Kaesung during the time would be of great help in bringing ou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ccording to Ma Hae-song, who was a local in Kaesung. He vividly remembered how his neighborhood looks like and he even mentioned the every single detail of his house in his essay. Moreover he also compared the traditional Han-ok in the former time from the household of other countries.

There was an extraordinary interest and insight in Han-ok. This study estimated Ma hae-song's Gaesung house based on Ma hae-song's personal and supplementary records. the contents by exchanging e-mails with his eldest son, poet Ma Jong-ki. Through the above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writer Mahae Song's Gaeseong House was a typical wealthy merchant's house located in Donghaerang, a luxury residential area, and was engaged in commerce.

키워드 : 개성 한옥, 마해송, 동해랑, 긴돌

Keywords : Gae-sung han-ok, Ma Haesong, Donghaerang, Gin-dol

#### 1. 서 론

개성 출신 아동문학가 마해송은 자신이 살았던 주택들을 여러 번 기록으로 남겼다. 10대까지 머물렀던 개성의 동해랑 큰 집, 동경 유학생 시절과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머물렀던 일본 동경의 집들, 한국전쟁 시절 머물렀던 대구의 피난 살던 집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머물렀던 서울 명륜동집과 성북동집 등이다. 그중에서도 개성집은 여러 수필에 주요 배경으로 언급되었다. 1957년 발표한 수필에서는 본인이 어린 시절 거주하였던 동해랑집을 「멋 第一章집」으로 소개하면서 실의 규모와 배치뿐만 아니라 살림살이까지 설명하였다. 여기에 『춘향전』, 『홍부전』, 『명당가』 등의 고전문학과 명사(名士)들이 언급한 이상적인 살림집을 언급하였다.

마해송의 큰 자제(子弟)인 시인 마중기는 아버지 마해송이 머물렀던 개성 집에 1944년 잠시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버지 마해송』에서 회고하였다.

두 사람 모두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성 한옥에서 삶을 영위하였던 경험을 작가로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 내용은 당시 개성 한옥에 대한 높은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개성 한옥을 살피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동안 개성 건축 분야의 연구는 만월대 발굴처럼 문화유산의 조사가 주를 이루면서 고도(古都), 충절 및 상업 도시라는 경관 차원의 이미지로 국한되어 왔다.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건축에 대한 관(官)차원의 공식적 조사는 없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개성 한옥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여기서 개인적 경험이란, 실제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기록이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기록을 뜻한다. 인간의 체험과 기억을 통한 탐구는 개성 한옥의 구현까지는 아니지만, 개성 한옥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연구자는 마해송 작가의 수필 속 한옥 묘사를 토대로 전형적인 조선 후기 개성 상인의 살림집 모습

\* Corresponding Author : namu5050@naver.com

을 보여주는 마해송 작가의 개성집을 추정하고 마중기 시인과 이메일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여기에 광무년간의 개성 호적 통표(統表)와 1912년 개성 토지조사부 그리고 마해송의 큰형인 마온규(馬溫圭)가 정리한 목천마씨 대동보를 참고하였다.



그림 1. 마해송 마중기 부자 (1963년, 출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 개성 한옥을 기록한 수필

### 2-1. 마해송의 한옥 기술

개성을 배경으로 하는 연구는 역사, 문학 및 생활사 분야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생활사는 결혼풍습, 개성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찰되었다. 역사와 문학에서는 기행문과 한시 등의 고전문학에서 나타나는 개성의 이미지 변화를 살피는 연구<sup>1)</sup>, 개성 출신 문인에 관한 연구<sup>2)</sup> 및 소설의 배경으로서의 개성연구<sup>3)</su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개성의 경관과 근대적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면서 개성의 변화를 비교하는 사진가의 관점과 같다.

대표적인 개성 출신 문학가 중 박완서와 마해송은 개성의 경관뿐만 아니라, 더 세밀한 관점으로 개성의 건축을 문학의 배경으로 삼았다. 개성의 건축과 공간들을 마치 바로 그 건축 앞에 있는 것처럼 공간과 같은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마해송의 한옥 설명은 문학이라는 예술성 위에 개성에서 삶을 영위하였던 전달자 본인의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뢰가 높다. 특히 개성에 대한 공적인 조사와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작가들의 경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마해송<sup>4)</sup>, 마중기<sup>5)</sup> 부

자의 글을 중심으로 박완서, 송경록, 최상옥의 기록을 검토하였다.

표 1. 마해송의 개성 집을 고찰하기 위해 참고한 수필

작가	제목	내용
마해송	「멋 제일장 집」, 『오후의 좌석』, 어문각, 1962	-마해송 개성 큰집 -개성의 종류 주택 -고전문학과 명사들의 이상적 한옥 소개
	「화초 없는 정원」, 『동아일보』, 1958.1	-개성사람들의 화초석 -마당 가꾸기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 지성사, 2000	-마해송 개성 큰집 안내 -공간 사용, 실 배치
	「어린날의 회상」, 『사회와 인상』, 세문사. 1953/ 편편상, 문학과 지성사, 2015	-평소 및 특별한 날 공간 사용 사례 -친척집, 서당, 학교 가는 풍경 및 학교건물에 대한 묘사
「나와 8·15」, 『평화신문』, 1957.8	-개성 만월동 집	
마중기	『나의 아버지 마해송』, 정우사, 2005	-마해송 개성 큰집 -개성 만월동 집
박완서	『내 고향 개성 이야기』, 역사비평, 2001.2	-개성 외곽(개풍)에 위치했던 박완서의 개성집 -농촌주택과 도시주택, 개성주택과 서울주택 비교 설명
송경록	『개성 이야기』, 푸른숲, 2000	-조선시대 일반적인 개성 집의 특징 설명 -일제강점기 개성 중심부 경관
최상옥	『사랑만한 음식없고 정성만한 양념없다』, 문예당, 1997	-개성 동해랑의 경관

본 고에서는 주로 마해송이 1962년 발행된 수필집 『午後の坐席』의 마지막에 실린 「멋 第一章집」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 수필은 『사상계』1957년 9월호의 문학 부분에 처음 소개되었다. 즉, 작가 마해송이 개성을 떠난 지 10여 년 후인 1957년의 기억이다.<sup>6)</sup>

마해송은 1923년 개벽사(開闢社)에서 조직한 서울의 <부인견학단>에 개성의 상류 주택과 중류 주택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개성의 중류 주택은 서울 부인들에게 깊은 인상은 남겼다. 마해송이 설명한 개성 중류 주택의 특징은 박완서가 설명한 개성집과 소설 『미망』속

1) 구본현, 「조선시대 한시에 재현된 개성」, 서울학연구, 86권, 2022. 2 / 장지연, 「개성 기행문을 통해 본 16세기 정치 개혁과 개성 이미지의 변화」, 서울학연구, 86권, 2022. 2

2) 개성문인 연구는 대부분 문인들이 출간한 잡지를 주 대상으로 한다. 박태일, 「근대 개성지역 문학의 전개」, 국제언어문학, 25권, 2012.4 / 「광복기 개성 지역 문학의 좌표」, 현대문학이론학회, 51권/ 노관범, 「근대 개성 문인 공성학의 지역활동과 춘포시집」, 반교어문학회, 40권

3) 김중희, 「소설에 있어서 근대정신의 수용 공간: 개성」, 현대문학이론학회, 36권, / 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근대공간의 건축술」, 한국여성문학학회, 45권

4) 마해송(1905.1.8.~1966.11.6.)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화인 『바위나라와 아기별』을 저술한 아동문학가이자 사회사상가이다. 개성 대화동 출생으로 본명은 상규(湘圭)이다. 목천 마씨로 7남매 중 4자로 누님이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성제대 의학부 내과 의사를 지낸 김순복이다. 부인 박희선은 최승희의 소개로 일본에 유학하고 한국인 최초로 정통 클래식 발레를 배웠다. 귀국 후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를 양성하였다.(마중기, 『아버지 마해송』, 정우사, 29쪽·312쪽, 2005)

5) 마중기(1939.1~)는 마해송과 박희선 교수의 2남 1녀 중 장남이다. 아버지가 머물렀던 개성 큰집과 만월동 집, 명륜동 집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있다. 1969년 도미하여 영상의학과 의사로 생활하면서 시인으로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6) 「멋 第一章 집」은 '개성인회'에서 출간한 지방지 『개성』에 다시 한번 소개되었다. (개성인회, 『개성』, 예술춘추사, 1970)

의 개성 한옥의 특징과 일치한다. 깔끔하고 정갈한 살림살이,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있는 긴 돌, 아무리 부자여도 반드시 있는 초가집 몇 칸과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대문 등 외빈내부한 외관과 부엌에서 통하는 뒷마당의 묘사가 그러하다.<sup>7)</sup>

기와보다 초가가 더 많은 집이었다. 도대체 **개성 집은 아무리 대가라도 초가 몇 개가 있어야** 하는 법이었다. 기와만으로 짓는 집은 왕궁뿐이라는 것이었다.

**머리를 굽으려고 들어가야 하는 대문을 들어서자**...(중략)...넓지 않은 마당이지만 흰하고 기둥이며 세간이 번질번질해서 당장 **훅**아 놓은 것 같았고 마루 밑에 빈틈없이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도 놀라움이었다.

**중문 들어서 머릿방 대형 안방 전형적 기억자 집이다.** 마당 왼편으로 헛간, 광, 부엌, 광 문 앞에 **세단 화계석**과 **부엌 앞에 긴돌**이 하얏다.

광 속에 크고 작은 향아리 늘어 놓은 것도 요모조모 깨끗하다기보다 아름답기 이를 바 없었다.

**부엌으로 해서 뒤터로** 나가니 거기 장독대가 있고 **또 화계석이 있어** 갖은 화분이 늘어 놓여 있었다. 건평은 심평 남짓한 집이었다. (『멋 제일장집』, 『오후의 좌석』1962)

### 3. 마해송·마종기 부자의 개성집

#### 3-1. 마해송 집안의 개성집

##### (1) 입지와 외관

『문예춘추』편집장이자 『모던재팬』사장이었던 마해송은 조선을 다룬 특별판 『모던재팬-조선판』을 간행하였다.<sup>8)</sup> 그중 1939년 판에는 하마모토 히로시(浜本 浩)가 찍은 마해송 선생의 개성집 외관 사진이 있다.

그런데 하마모토 히로시(浜本 浩)는 마해송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다.<sup>9)</sup> 그는 마해송의 개성집을 근대식 집이 아닌 ‘개성의 옛날집’으로만 언급하였기 때문이다.<sup>10)</sup> 이러한 표현은 겉에서 보이는 초가의 대문과 사랑채만 보고 내린 판단일 것이다.

7) 김버들·조정식, 「소설 미망 속 개성 한옥 고찰」, 건축역사연구 31권 2호, 2022.6

8) 마해송은 아동문학가이자 잡지사의 편집장이자 연극 기획자였다. 방정환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잡지인 『낙성(綠星)』을 창간하였고 「조선소년단」을 조직하여 어린이를 위한 순회공연을 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마해송이 어린이극을 준비하면서 직접 조사한 연극용 복장, 분장 도구의 스케치가 전시되어 있다.

9) 하마모토에 의하면 마해송의 집은 이케마치(池町)에 있으며 대문에는 마온규(형), 마상규(마해송의 본명)의 문패가 함께 있었다. 마종기는 아버지는 대화동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는데, 당시 밀양 박씨인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추정된다.

10) 그는 마해송의 고향이 아니었다면 개성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조선판의 내용은 개성보다는 서울과 평양에 더 집중하고 있기도 하였고, 근대식 양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식’이라고 느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 마해송 개성 큰집의 외관 (출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마해송 사진앨범, 해송(비)810.099-11)

마해송의 개성 집은 남대문 동쪽의 **숫우다리**라 불리는 **풍교(楓橋)** 천변에 있었다. 중문 밖으로 다시 독립된 살림채가 있는 큰 집으로 늘 10여 명이상의 대가족이 거주하였다.<sup>11)</sup> 사랑채, 안채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전형적인 미음자 형태의 퇴세집이다.



그림 3. 개성 민가의 납작대문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2016, 105쪽)

대문은 외벽과 이어진 평대문이다. 개성 출신 작가들이 예외 없이 언급했던 개성 도심한옥 외관의 특징이다. 외빈내부한 모습은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 개성의 시전 근처에 위치한 부유한 계층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11) 1912년 토지조사부에는 호주 마응휘(馬應輝:마해송의 부친)의 소유지가 지동 665번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면적이 38평에 불과하다. 게다가 665번지는 사진과 같이 천변이 아니라 길 쪽에 면하고 있다. 하지만, 마해송 마종기 부자의 기억이 일치하고, 모던재팬(조선판)에 나타나는 마해송 가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는 점, 당시 딸을 동경에 있는 의대로 유학시키고 마해송의 두 형님들이 개인사업을 하였고, 부친이 마해송에게 평생 놀고먹어도 된다고 하였던 점을 볼 때, 1912년 토지조사부의 내용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마해송과 친분이 두터웠던 공성학, 고한승 등의 집안이 삼포, 전기사업 등으로 가업을 전환하였는데 반해, 마해송의 집안은 원래부터 경영하였던 포목점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가세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당시 개성 상인들의 사업전환에 대해서는 김가연, 『한말~일제강점기 개성 고한승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지역유지활동』,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9 및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2 참고)

12) 필자는 마해송 개성큰집의 건축연대를 파악하고자 일본 동양문고의 광무년간 호적표와 일본 경도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호적 및 1912년 토지부대장을 검토하였으나, 마해송가가 위치한 지역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작가 마해송의 수필과 시인 마종기의 이메일을 통해 마응휘부터는 확실히 풍교근처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마해송 개성 큰집의 건축연대는 적어도 19세기 이후로 볼 수



**대문이 얇다. 뒷 대문이 오히려 크고 번듯했다.** 대문을 들어서면 왼 편에 西閣(便所), 中門을 들어서면 오른 편이 헛간. 똑 바로 안 大門. 왼편으로 마당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중략) 사랑은 안방 三間 대청 건넌방 한 칸이었다. (마해송, 『오후의 좌석』, 「멋 第一章 집」, 312쪽)

대문 오른쪽으로 돌과 회벽으로 가지런히 쌓은 벽체가 이어져 있다. 길가에 면한 벽체에는 빗물을 막기 위해 입구를 T자로 만든 굴뚝과 창이 있다. 실의 벽이 그대로 외부와 면하는 담이 되는 외관은 시전(市塵)이 있는 대도시에서 보이는 도시형주택의 특징이다. 이는 개성시전을 참고하여 그대로 옮겨 지은 서울의 조선 초기 시전 형태와 흡사하다.<sup>13)</sup> 도로에 면한 외벽은 다양한 방식의 화방벽을 반담 혹은 온담으로 쌓았다. 여러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개성 살림집의 벽체와 지붕은 다채로운 거리 경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20세기 초 전문가들에게도 인상적이었던 개성의 변화가 살림집의 특징이었다.<sup>14)</sup>



그림 4. 마해송 개성 큰집 위치도 (출처: 『개성부지도』, 1930년대,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소장)

문간과 본체는 기와를 올렸다. 합각이 보이지만, 지붕곡이 세지 않다. 반대편은 우진각지붕이다. 팔작가구를 구성하려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다른 맞배가구가 직교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합각이다.

주변 가옥과 마해송 가를 비교하면, <그림 2>의 왼편에서 보이듯이 남대문에서 멀어질수록 초가집이 많다. 이에 반해 마해송가는 기와를 올리고 골목과 접한 외벽이 울타리의 역할까지 하면서 화방벽과 석재를 쌓아 올렸다. 도심에 위치한 여유 있는 시전 상인의 집이다.

13) 정수인, 「20세기 초 개성 남대문가와 한양 종로 주변 시전의 비교를 통한 상호 관계 연구」, 건축역사연구, 31권 2호, 2022.4

14) 1930년대 개성 한옥을 조사한 콘 와지로의 보고서(『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 第1冊\_民家』)와 김윤기 박사의 학부제출 논문 및 노무라(野村孝文), 『開城雜記(五)』, 朝鮮と建築, 第十二輯, 第二號, 朝鮮建築會, 1933 참고

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마해송가가 있는 동해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유한 동네였다. 최상옥의 기억에 따르면 구두를 신고 걸으면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동네였다고 한다. 즉 동해랑 동네의 길은 모두 포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 (2) 실의 구성과 시설물

히마모토의 사진에도 나타나듯이 마해송의 개성집은 대문이 작고 눈에 띄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문, 중문과 안대문을 지나면 넓고 밝은 안채가 있었다. 아들 마중기 시인도 대문은 볼품없이 작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엄청 큰 집이었고 뒷대문이 훨씬 큰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대문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헛간과 같은 수장(收藏) 공간이 있었다. 중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사랑채와 마당이 있었다. 사랑은 마해송의 선친이 사용하였고, 사랑채도 방-대청-방으로 구성된 독립채였다.<sup>16)</sup> 대청에서 큰방으로 들어가는 문얼굴 위에 마해송 부친의 호인 「삼화당기(三和堂記)」액자가 있고 두껍담이에는 행서와 서화가 있었다. 사랑채 안방은 3칸인데 내부에는 문갑과 선친의 시를 수 놓은 병풍이 있었고 방 한편에는 유리 액자 안에 유학 중인 마해송의 사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랑채의 큰방(안방)이 1.5칸 내지 2칸인데 반해 3칸이나 되는 큰 규모이다.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안채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곳도 사랑채 안방과 마루였다.

**안방에는 文匣 한 쌍에 碩床이 있고 병풍은 先考 壽筵 詩를 繡놓은 것이었다.**

**대청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지두 위에는 「三和堂記」細字가 額字로 걸려있고 바라지 두껍담이에도 이름 있는 書家의 行書가 붙어 있었다. 한 편에 寫眞額이 유리 끼어 있었는데 내 사진도 끼어 있었다. (마해송, 「앞의 글」, 312쪽, 1962)**

긴돌은 빼놓을 수 없는 개성집의 살림살이였다. 마해송 선생의 집에는 화강암으로 다듬은 두 단짜리 긴돌이 있었다. 사랑 마당에도 이단의 긴돌(화초석)이 있었다.<sup>17)</sup> 개성 출신 작가 박완서와 송경록의 글에서도 살림의 규모, 재력과 무관하게 긴돌은 개성집의 필수

15) 최상옥, 『사랑만한 음식없고, 정성없는 양념없다』, 문예당, 1996, 13~15쪽

16) 개성 큰집의 사랑채는 독립채로 안채와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따로 두었고, 마당과 화장실, 부엌도 따로 있었다. (마해송, 『앞의 책』, 2005, 63쪽 및 마중기 선생님 이메일 회신)

17) 콘 와지로의 조사노트에는 설거지돌, 긴돌 이라고 적혀있다.

적인 살림살이로 설명하였다. 마해송 선생은 긴돌의 크기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개성집 사랑채의 긴돌은 2단짜리였다. 긴돌의 단수는 그 집의 재력을 상징한다.

**마당에는 두 단짜리 花階石이 있었다.** 花崗石을 다른 花階石은 다리가 석자 床의 길이가 다섯자쯤 되는 花盆을 놓는 臺石이다. (마해송, 「앞의 글」, 313쪽, 1962)

開城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開城의 집은 草家 三間の 오막살이** **곳구멍만한 좁은 마당이라도 그 마당에 花階石이** 있기 마련이다. (마해송, 「화초없는 정원」, 『앞의 책』, 213쪽,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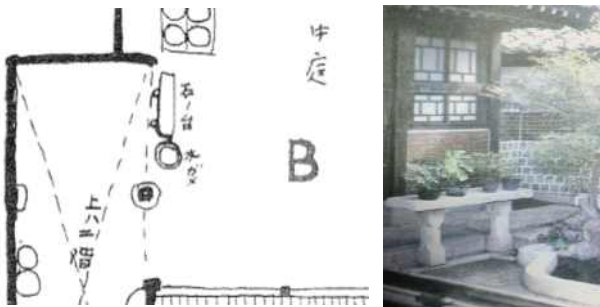


그림 5. 긴돌 사례 (서울역사박물관, 『큰 와지로 필드노트』, 2016/ 『조선의 민속전통』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안대문 오른쪽으로 광이 있고, 광 앞에 장독대, 긴돌 등 안채 살림살이를 갖춘 부엌과 안마당이 있었다. 안채는 방-대청(3간)-방으로 구성되었고 건넌방은 중문과 연결되어, 중문을 열고 나가면 방 두어 간과 변소가 있는 별채가 있다.

**안 대문을 들어서면 왼편으로 마당, 오른편과 왼편에 광이 있고 왼편 광 앞에 장독대, 긴돌부엌, 안방, 三間 대청, 건넌방, 장독대 앞에 花草단이 있었다. 건넌방 아래 中門이 있고 또 방 두간과 안 변소가 있고 뒀 大門이 되었다.** (마해송, 「앞의 글」, 313쪽, 1962)

안채의 마루와 안마당에서는 굿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집안의 여자들만 모여 굿을 하면 대청에서 굿상을 차리고 안마당에서 작두를 타면 마해송은 뜰 아랫방에서 구경하곤 하였다.<sup>18)</sup>

마해송은 주로 장례, 혼례, 굿과 같이 비밀상적인 행사가 있을 때, 행사의 내용과 함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생활과 공간의 대응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마해송이 위로 세 분의 형님들과 나이차가 있었기에 주로 안채의 뜰아랫방에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거나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중문을 걸어 잠그고 안채의 안방에서 머물렀다. 따라서 늘 일상적으로 북적

18) 마해송, 『아름다운 새벽』, 20쪽, 2015

거리고 혼잡했을 사랑채보다 안채에 대한 설명이 더 많다.

마해송이 수필에서 언급한 각 실과 크기 및 일상과 비밀상 생활과 공간의 대응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생활과 마해송가 공간의 대응관계 (○: 일상/■: 비밀상)

실명	규모 및 시설	용도 및 특이사례	
사랑채	사랑안방	○3간 ○문지두[門楣] 위: 「삼화당기」액자 ○바라지·두집담이: 서가(書家)의 행서(行書) ○가구 - 문갑 1쌍, 연상 - 병풍(수 놓은 수연시) - 가족 사진 액자	○아버지 공간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 ○가족회의와 접객 ○안채 안방보다 큰 사랑안방 ■ 상례 준비공간
	대청	○1간	
	건넌방	○1간	○형님 공간
	부엌		
사랑마당	○대문, 중문 ○서각(西閣, 변소), 헛간, 광 ○이단 화계석, 우물	○다양한 외부인들의 출입(물지게꾼, 행인들)	
안채	안방	○아랫목: 시렁, 예장함, 고리짝 ○벽장, 옷방 ○성주보(한지, 실, 쌀)	○조반 - 아랫목: 아버지, 마해송 - 발치: 어머니, 동생 *큰형, 둘째형, 셋째형 각상 ○병치레, 혼육 공간 ■상례시 빈소(윗목) 빈실
	부엌	○두무(독), 시렁, 긴돌, 시렁위 소반들	○부엌 앞에 긴돌을 두고 긴돌 부엌으로도 불림
	광	○앞에 장독대	
	대청	○3간 ○뒤주-상청-대감독	■행사 음식 만드는 장소: 돛자리 위 장정, 떡 만들기 ■굿(작두타기) ■상청(장례 후 탈상까지) ■혼례청: 작은 누님의 혼례
	건넌방	○머느리	○조반: 누님과 형수들
	뒀터	○장독대, 곡간(穀間) ○성주신(터줏가리)	○누이가 놀던 곳
	중문		○돌림병 유행 시 폐쇄
	안마당		■굿: 작두 날 가는 사람 ○떡치기
	뜰아랫방	○2간 ○해송이 주로 사용 ○손님이 머무는 곳	○괘짜 ○행사 음식 사반 위 보관
	뒀대문	○안채 사람들 ○크고 번듯함	○골목 지나 천변(북관동 이모넛떡 가는 길)
변소	○안채 변소		

마해송의 집안은 대대로 포목점을 운영하였고 개성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해랑에 위치하였다. 사랑채는 안채와 별도의 영역을 구축하며 독립되어 있으며, 한 간반 이상의 사랑채 큰방(사랑안방)과 안채의 3간 대청, 그리고 주 생활공간 이상으로 큰 수장 공간을 갖추었다. 이러한 점은 마해송의 개성집이 적어도 1800년대 이후, 상업으로 꾸준히 부를 쌓아 온 부유한 개성집의 특징을 보인다.

마해송은 개성집의 가구(架構) 대한 설명은 하지 않

았다. 그리고 집의 간살이가 좁아 불편하다고 하였다.

우리 집의 험은 방통이 넓지 못했던 것과 문지방이 높고 문지방(門楣)이 얇아서 드나들 때마다 이마를 부딪칠가 염려되는 點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해송, 『전계서』, 321쪽)

간통이 좁은 개성의 살림집은 안방 혹은 내방에 ‘머릿방’이라 불리는 옷방을 따로 두어 장지로 구분하거나, 퇴칸을 두어 간반통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19)</sup> 오래된 개성 간반통 집의 경우는 용마루가 단면의 중심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진 비대칭 가구구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1920~30년대 개성 한옥을 조사하였던 노무라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노무라는 개성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인 지정(池町)의 조씨(趙氏)택을 소개받았다. 노무라는 지정 조씨택의 지붕 가구가 용마루를 중심으로 양쪽 지붕이 비대칭임을 주목하면서 오래된 개성집에 비대칭 가구가 많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 비대칭 간반통의 가구가 측 4량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sup>20)</sup>

이상의 내용으로 1910년대 개성 마해송 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그림 6. 마해송 개성 큰집 추측 평면도 (1910년대)

(3) 마종기가 기억하는 개성집

마해송 선생의 아들 마종기는 6세였던 1944년 6월 일본에서 돌아와 개성 큰집에서 7개월가량 머물렀

19) 일반적으로 옷방과 머릿방은 안방과 대청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건넌방의 개념으로 본다. (조정식, 『한국남부지방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1권 1호, 1995.1)

20) 김버들·이종서, 「조선시대 측 4량가 건축의 구조와 특성」, 『건축역사연구』 28권 6호, 건축역사학회, 2019.12

다.<sup>21)</sup> 그는 동해랑 개성집을 엄청 규모 있는 큰아버지택으로 회고하였다. 작은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었다. 안채와 바깥으로 나가는 문도 따로 있고 마당, 변소와 부엌도 따로 있었다고 한다.

마종기 시인은 삼간이나 되는 안채 대청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다. 개성집과 서울집의 차이 중의 하나가 대청이 안방의 절반 크기로, 안마당을 면하는 부분이 대청이 아니라 안방인 점이다. 즉, 굳이 대청을 통하지 않고 안방으로 통하는 점인데, 마해송가의 경우 대청이 안마당을 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의 살림집은 시전상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차인(差人)을 거느리는 도방 이상의 거상들이 거주하는 부유한 살림집이다.<sup>22)</sup>

동해랑 개성 큰집은 1940년대에도 주요 공간은 변화가 없었다. 다만 가구원의 수가 줄어들고 상업 위주의 삶이 바뀌면서 수장 공간에 변화가 있었다. 이 부분은 마종기 시인과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소설가 마해송이 기억하는 1910년의 개성 큰집과 시인 마종기가 기억하는 1940년대 개성 큰집의 모습을 참고로 마해송의 개성 집 평면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1910년대의 추정도의 확인을 마종기 선생님께 부탁드렸다. 마해송 선생님의 큰 자제로 의사이자 시인인 마종기 선생님은 만월초등학교 3학년 중반까지 개성에 거주하여 당시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주요 기억 요소는 불품없는 대문과 함께 방을 두르는 면마루, 마당의 꽃과 돌들이 아름다웠다고 회고하였다.

우리가 살던 집의 대문은 아주 불품없이 작는데, 들어서면 엄청 큰 집으로 사랑채는 거의 완벽한 독립채가 되어 안채와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따로 있고, 마당과 화장실, 부엌이 따로 있고, 두 개의 방이 있었다. (마종기, 『앞의 책』, 63쪽)

전체적으로는 정확합니다. 내가 1940년대 말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정도였지요. 개성 만월국민학교에 다녔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본 것과 아버지가 사시던 때와는 아마도 좀 변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본대로 말씀드리자면 사랑 마당이라고 쓰신 그 윗쪽(그림으로 본) 광이라고 쓰신 곳에는 **광이 없었고 작은 정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꽃과 돌들이 아름다웠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안마당’의 아래쪽에도 광은 하나만 있었고** 장독이 두 번째 광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문을 나가서 뒷문으로 나가기 전의 공간이 우리가 몇

21) 마종기는 아버지 마해송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까지(1944~45년) 안채 밖의 별채에서 어머니, 남동생 및 여동생과 머물렀다.

22) 김버들·조정식, 『앞의 글』, 건축역사연구 31권 2호, 2022.6

달 사던 곳이었지요. 거기에 번소가 방쪽에 붙어 있지 않고 안채의 벽쪽에 붙어 있었습니다.(중략) **대문은 아주 작았던 게 인상적이었고 그 앞은 개울, 뒷문이 오히려 더 컸습니다.** (마종기 선생님 이메일 202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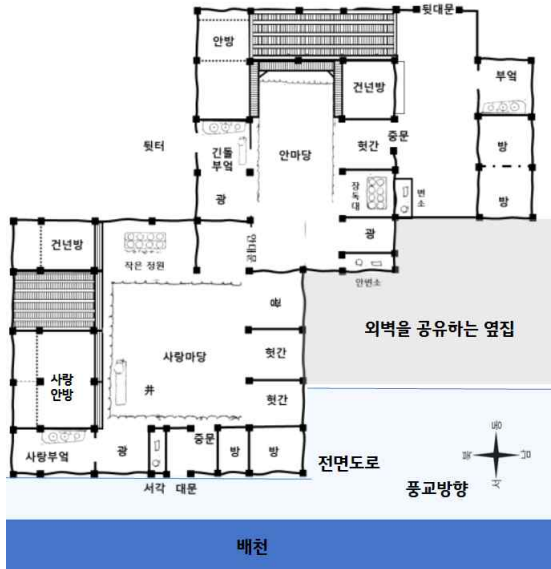


그림 7. 마해송 개성 큰집 추측 평면도 (1940년대)

기본적인 구조 특히 안채의 경우 30년 사이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다만, 임의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 바뀌었다. 사랑채의 광이 정원시설로 변한 데에는 가구원의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작가 마해송이 머물렀던 1910년대까지는 5남 2녀의 형제들과 결혼한 형님네와 살림을 봐주는 남녀하인들까지 식구들이 많았지만, 이즈음에는 독립한 가구원과 줄(卒)한 식구들로 인해 가구 수의 변화가 있었다. 아들 마종기는 마해송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까지 개성 큰집에서 큰어머니 두 분과 함께 지냈다고 하였다.<sup>23)</sup>

그리고 사랑 마당의 광 자리에 몇 가지 꽃과 돌들이 아름다웠다고 하였다. 당시 이 자리에는 여전히 긴돌과 화분이 놓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사랑 마당에 우물이 생긴 것이다. 마해송 작가의 회고에는 우물 이야기가 없다. 당시는 마을의 공동우물을 사용하거나 물지게꾼이 드나들던 시절이었다.<sup>24)</sup>

23) 5남 2녀였던 마해송 선생님의 형제들은 해방 무렵에는 형님, 누님, 동생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큰형님 온규와 사남(四男)인 마해송만 생존해 있었다.

24) 식수 사용은 마종기 선생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물이 집마다 들어서게 된 시기는 오가작통법이 사라지는 갑오경장 이후로 본다. 대부분 공동우물을 사용하였고 물이 귀한 개성에서는 특히 공동우물로 생활하여, 한 마을에 우물이 여섯 개나 있어서 육우물골(六井洞)이라는 골목이 있었다.(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㉔』, 366쪽.

### 3-2. 도시형 한옥 만월동 집

마해송은 해방 직전 가족과 함께 현재 개성 송악산 밑 만월동 336-4번지로 이사하였다. 마해송의 회고에 의하면 광복을 맞이하던 날, 1칸짜리 건넌방과 두 칸짜리 마루에 장안의 명사 30명이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고 한다.<sup>25)</sup>

八·一五의 開城은 저녁때부터 내 집에 촌이 모였다. 十六日에는 새벽부터 모였다. 한칸짜리 건넌방 두칸짜리 마루에 장안의 명사 三十餘名이 모이고 門 밖에는 젊은이들의 自轉車 數十臺가 대기 태세다. (마해송, 「나와 8·15」 『오후의 좌석』, 207쪽, 1962)

집 뒤는 만월대로부터 연결된 구렁이 있고 집 앞에는 정사각형의 큰 배추밭이 있었다. 마종기는 겨울이면 풍풍 언 배추밭에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썰매를 타고 놀았고, 가을걷이가 끝나면 친구들과 배추 쪼기를 찾아 먹었다고 한다.

만월동 집 앞은 배추밭으로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즐겼지요. 큰길을 따라 큰 배추밭이 정 사각형으로 이어졌고, 그 뒤로 똑같은 사이즈의 집이 다섯 개었는데 그중 제일 가운데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호수돈 유치원과 이어서 만월국민학교에 다녔고 3학년 중간에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2021.9.10. 이메일)

아들 마종기의 기억에 의하면, 마해송 가족이 거주한 1944년도에는 336번지에 같은 모양의 한옥 5채가 한 줄로 있었고 그중 가운데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sup>26)</sup> 큰 아버지의 도움으로 만월동 한옥을 구입하였고, 한 줄로 있는 5채의 만월동 한옥들은 안방과 마루 그리고 꺾어져 건넌방이 있는 기억자 고쾌집이었다. 마종기는 대부분의 서울집과 같은 구조로 기억하였다.

우리가 몇 해 살았던 **만월동의 집은 별로 특이한 점은 없고** 대문 중문을 들어가면 마당, 그리고 큰 마루와 그안에 안방, 그리고 기억자로 꺾어서 작은 방. 작은 방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조그만 창문, 그 바깥에는 쪽 마루같은 게 있었네요, **대부분의 서울의 집과 같아요.** (2021.9.7. 이메일)

1989, 열화당)

25) 가족과 이사한 곳은 개성시 만월동 336번지 4호로 앞에는 배추밭이 있었다고 한다.

26) 1912년 개성 지적에는 336번지가 박도진 소유의 한 필지이며, 대지가 아니라 밭이었다. 어느 순간 분필되면서 도시형 한옥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만월대 아래 만월동 마을의 변화 (㉔1939년 ㉕1908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중 1908년과 1939년 개성 만월동 사진을 보면 논과 밭뿐이던 만월동 마을에 집이 들어선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시기가 되면, 개성도 서울처럼 개량한옥이 많이 지어졌다. 1910년대와 1940년대 송도면과 개성부 조선인 인구수를 비교하면 30년간 2배가 증가하였다.<sup>27)</sup> 따라서 마해송이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는 1940년대 이전에 전(田)이었던 1필지가 5필지 이상의 대지로 분필 되고 한옥들이 들어섰을 것이다. 마종기는 큰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움으로 만월동 한옥을 구입하였다고 한다. 만월동 집은 똑같은 5채 중 가운데 집이었다고 하며, 구조는 당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서울집의 형태였다고 한다.

연구자가 광무년간 개성 호적표를 분석한 결과 만월동 일대 마씨들이 지파리와 이정리 일대에 많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지파리는 1914년 행정구역 조정 시 고려정과 지정으로 이정리는 만월정, 북부정, 고려정으로 삼분되었다. 만월대 바로 밑의 살림집들은 1930년대 이후 개성과 서울에서 많이 지어졌던 도시형 개량한옥으로 유추할 수 있다.

27)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2, 110~1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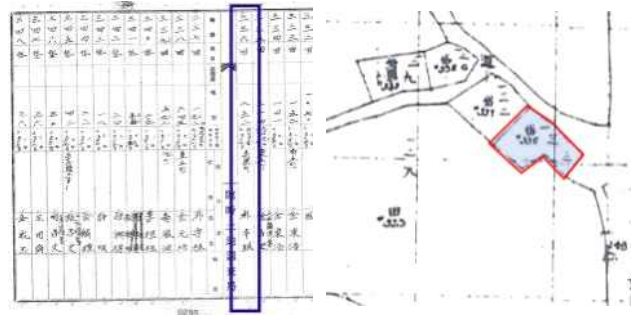


그림 9. 만월동 336번지 지적도 및 지적 (1912년)

### 3-3. 마해송의 한옥에 대한 인식과 수필의 기록성

마해송의 개성집 묘사는 기록적 가치가 크다. 첫째, 박완서 등 개성 출신 작가들의 묘사와 달리 실재하였던 개성 살림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이 분명하고 세부 묘사가 뛰어나다. 마해송은 1919년 15세까지 개성집에 머물렀다. 마해송은 집 자체뿐만 아니라 대문부터 안마당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풍광과 세간살이, 창호 및 바닥 등 동선에 따른 설정과 정확한 건축용어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거기에 살림살이의 크기까지 기록하였다. 마해송은 본인이 머물렀던 집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옥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겨 건축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보인다.<sup>28)</sup>

둘째, 기록의 본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 및 기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마해송은 개성집과 본인이 머물렀던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개성집의 특징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지역적으로 서울과 일본, 경제력에 따른 상류주택과 중류주택을 모두 경험한 마해송은 방의 크기가 작은 점과 긴 돌의 용도, 외빈내부한 외관을 개성집의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즉 본인 집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였다. 더불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고 아들까지 2대에 걸친 기억이기 때문에 개성 한옥의 연구사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셋째, 고전을 통해 살림집의 이상적인 모습과도 비교하였다.<sup>29)</sup> 춘향가의 월매의 집과 춘향의 방, 흥부가 속의 흥부네 집 짓는 과정, 명당가에 나오는 귀인의 집 등 고전문학 속 이상적인 집을 각각 비교하였다.

28) 마해송의 한옥에 대한 식견은 그가 서울집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집 수리 내용을 기록한 「사람나름」성북동 집으로 이사 가는 내용인 「이사기」한옥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내용을 기록한 「요설록」 등을 살펴보면, 보수의 범위와 내용뿐만 아니라, 수리 기술의 수준을 정확한 부재 명칭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29) 고전 속 이상적인 한옥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憧憧의 살림집」, 41~52쪽이 있다.



춘향이의 방은 너무 호사스럽고 사치한 수석이 중국풍이라 하였고, 가장 이상적인 집은 당시 여러 명당가에서 알 수 있듯이 도회와 전원이 결합한 입지에 지은 집이라고 하였다. 외부의 자연을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성 한옥의 꾸밈이 당시 사람들의 동향과 부합한다고 하였다.

넷째, 마해송의 집에 대한 물리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관습과 일상사에 대한 정보를 건축 공간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보는 건축전문가의 기록과 다른 차원으로 공간이해도를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지붕은 곡이 세지 않고 처마선이 평평하다고 하였다. 일본과 동남아의 건축과 비교하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곡선은 우리의 살림집 모습이 아니라고 하였다. 개성은 1930년대까지도 고려시대 지어졌거나 고려시대 양식을 지닌 고택들이 많았다.<sup>30)</sup> 중류 이상의 집이면 반드시 팔각으로 집을 지었고, 여유가 있으면 부속채도 추녀를 사용하여 지붕선을 들어 올렸던 서울과는 분명히 다른 경관이였다. 개성 사람들은 아무리 부잣집이라 모든 집채에 기와를 올리는 것은 궁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개성의 변화가가 오랫동안 맞배지붕으로 남아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순조 24년(1824) 김이재가 편찬한 『중경지(中京誌)』에는 “고려 때 살림집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오정문(午正門)에서 후서강(後西江)까지 비오는 날에도 비를 맞지 않고 건물의 추녀 밑을 따라 시내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관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는 1920년대 잡지 『개벽』 중 박달성의 기록을 보면, 개성의 시가지는 고려시대 도시구조에 기반<sup>31)</sup>한 맞배가구의 시가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sup>32)</sup>

가구의 완결성을 의미하며 입면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팔각가구와 달리 맞배가구는 공간의 크기와 방향 조절이 가능하여 기능에 충실한 구조이다.<sup>33)</sup> 개성인들에게 건축은 공간의 기능을 담는 틀로 여겼기 때문에

30) 野村孝文, 『開城雜記(五)』, 『朝鮮と建築』, 第十二輯, 第二號, 朝鮮建築會, 1933 노무라가 개성지역 조사 후 그린 개성한옥분포도(圖 20)을 보면, 배천 주변에는 고려시대 가옥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 朴達成, 「內外面으로 觀한 開城의 眞相」, 『開闢』27, 1922. 9., 64쪽

32) 1910년 한일병탄무렵의 개성 시가와 1930년대 사월 초과일 행사를 촬영한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사진에서도 맞배지붕이 이어진 개성 변화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0)

33) 맞배가구가 팔각가구에 비하여 공간을 임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은 김버들·이중서 「조선 전기 맞배직교형 건축의 유형과 전파」, 『건축역사연구』제27권 2집, 건축역사학회, 2018.4를 참고

맞배가구를 선호하였고 구조에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기 보다는 구조를 매개로 하여 보이는 경관과 기능성이 더 우선시 되었다.



그림 10. 개성시가 (상:일본문화재연구소 소장 1910년 전후/ 하: 민속박물관 소장, 1930년대)

#### 4. 결론

본 연구는 개성 출신 아동문학가 마해송과 아들 마중기 시인까지 2대에 걸친 기록을 통해 실재하였던 부유한 개성 한옥을 고찰 한 것이다. 북한의 살림집에 대한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사람과 기억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마해송 부자의 기록과 기억을 토대로 기존의 조사된 자료와 다른 개성 출신 작가들의 기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마해송은 본인이 거주하였던 개성, 서울, 일본의 집을 모두 동선에 맞추어 실의 배치와 살림살이와 수리 경험까지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한옥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대 다른 나라의 살림집과도 비교하였고 고전문학 속 한옥의 모습을 함께 소개하여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식견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마해송 부자가 머물렀던 동해랑 개성집은 19세기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개성 거상의 살림집이다. 대문은 눈에 띄이지 않았고, 바깥채는 낮고 소박하게, 안채는 높고 정갈하게 만들고 꾸몄다. 소박한 대문을 지나면 대문보다 더 큰 중문이 있고 중문을 통과하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깔끔하고 화려하다.

셋째, 1940년대 마해송 부자가 머물렀던 개성 만월동 집은 본래 밭으로 사용되던 필지를 5개로 분필하여 지은 것이다. 5개의 필지에 같은 모양의 집이 각 필지에 지어졌고, 서울집에서 보이는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1930년대 이후 지어진 도시형 한옥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넷째, 마해송의 한옥관은 마해송이 언급하고 이상적 살림집으로 예시를 든 고전문학 속 명당과 함께 개성 집을 설명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여주기 좋은 규모와 사치스런 치장이 아닌, 도회와 전원이 결합한 입지에 자연스럽게 외부의 산수를 끌어들이는 집을 이상적인 한옥으로 보았다.

다섯째, 안채와 독립된 사랑채, 안방보다도 큰 삼간 대청과 대청이 안마당을 면하는 배치는 개성 상류주택의 특징이다. 마해송의 집안은 누대에 걸쳐 마지막까지 시전에 남아 있었던 포목점을 경영하고, 포목점의 도가가 집에서 가까운 남대문 밖에 위치한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개성 거상의 살림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해송 부자의 개성 집에 대한 회고는 실재하였던 부유한 개성 살림집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다. 이를 토대로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연구자의 책임이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들을 더 심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영환, 『북한의 옛집 3』, 예담북스, 2012
2. 개성인회, 『개성』, 예술춘추사, 1970
3. 경기문화재단, 『2012 개성 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2부)』, 2012
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편집부, 『조선의 민족전통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5. 김가연, 「한말~일제강점기 개성 고한승가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지역유지활동」,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9
6.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4
7. 김버들·이종서, 「조선 전기 맞배직교형 건축의 유형과 전파」, 『건축역사연구』제27권 2호, 건축역사학회, 2018.4
8. 김버들·이종서, 「조선시대 측4량가 건축의 구조와 특징」, 『건축역사연구』제28권 6호, 건축역사학회, 2019.12
9. 김버들·조정식, 「소설 미망 속 개성 한옥 고찰」, 건축역사연구 31권 2호, 2022.6
10. 리화선, 『조선건축사』, 발언, 1993.10

11. 마종기, 『아버지 마해송』, 정우사, 2005
12. 마해송, 『오후의 좌석』, 어문각, 1962
13. 마해송,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지성사, 2015
14. 마해송, 『편편상』, 문학과지성사, 2015
15. 마해송, 『전진과 인생』, 2015
16. 민윤식, 『소과 방정환 평전』, 스타북스, 2014
17. 박완서, 「내 고향 개성 이야기」, 『역사비평』, 2001.2
18. 서울역사박물관, 『콘 와지로 필드노트』, 2016
19. 송경록, 『개성이야기』, 푸른숲, 2000
20.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21.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2
22. 정수인, 「20세기 초 개성 남대가와 한양 종로 주변 시전의 비교를 통한 상호 관계 연구」, 건축역사연구, 31권 2호, 2022.4
23. 조선총독부, 『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_第1冊\_民家』, 1924,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3198001924>)
24. 조정식, 「한국남부지방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1권 1호, 1995.1
25. 최상옥, 『사랑 만한 음식 없고 정성 만한 양념 없다』, 문예당, 1997
26. 한일비교문화센터 역, 『모던일본 조선편 1939』, 어문학사, 2020
27. 野村孝文, 「開城雜記(五)」, 朝鮮と建築, 第十二輯, 第二號, 朝鮮建築會, 1933
28. 목천마씨족보, 『한국족보, 1200-2014 Images Family Search』<http://FamilySearch.org> : 13 February 2018. Chonbuk University, Jeonju, Jeollabuk-do.

본 논문은 2021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에서 출판한 『개성 한옥』 중 「소설 속 개성 한옥」의 일부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어린 시절 기억을 공유해 주시고 자료조사를 도와주신 마종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접수(2022. 08. 30)

수정(2022. 11. 21)

게재확정(2022. 12. 6)